

●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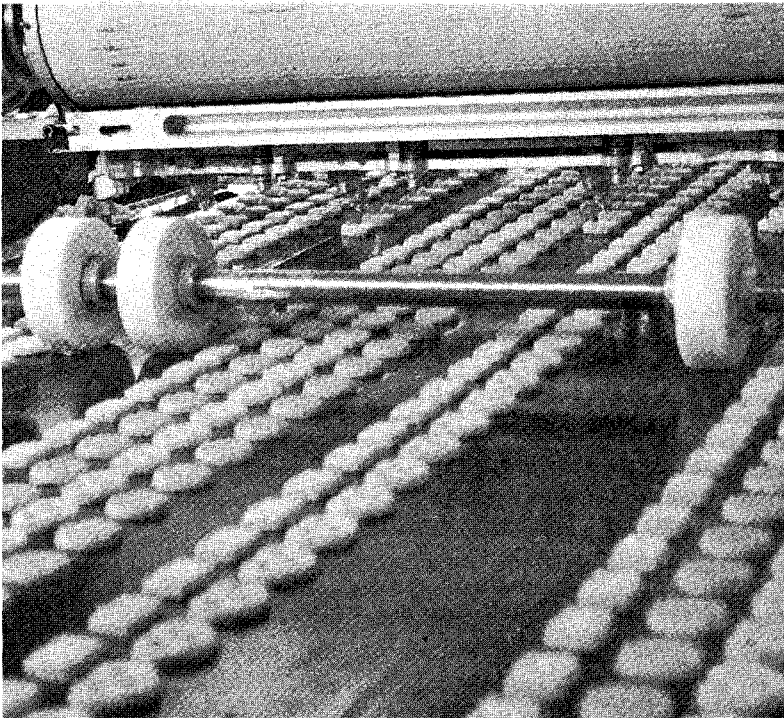
인터뷰

먹거리문제

— 김성훈교수와 함께 —

(정책에 따라 중요해질 수도)

▼ 닭고기가 가공식품용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크년도 하반기부터는 먹거리(식품)가 서서히 수입개방될 전망이다.

닭고기 통조림 등 직접 계(鷄)산물의 수입도 문제려니와 계산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칠면조고기나 돼지고기 통조림 등의 수입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터키버거나 터키샌드위치(햄버거 패드대신 칠면조고기를 넣거나 식빵에 칠면조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넣어 샌드위치를 만든다)가 학생들의 간식이나 아침식사의 자리를 차지할 날도 멀지 않았다. 빠르면 5개월 후인 7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설자리는 어디이며 식품산업의 역할과 식품산업의 위치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로 김성훈교수를 찾아 보았다.

김박사께서는 UN산하의 FAO 유통금융분야 책임자로 방콕 현지 근무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후 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직을 맡아 낙후된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축산업의 앞길에 흥해가 막고있어

기자 :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식생활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농업의 내용과 개념은 아직도 20년전의 수준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의식수준이나 도덕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골목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산업은 1차산업이 아니고 복합산업이다

김교수 : 60년전 호주의 코린 ·

서떻게 할 것인가?

빈곤해질 수도 있다)

크라크라는 학자가 편의상 농업을 1차산업에 분류하였는데 농업은 생산에서 가공처리, 유통 등 1차, 2차, 3차산업에 걸쳐 있는 복합산업입니다.

축산업의 정의를 찾아보세요. 생산뿐만 아니고 축산물 가공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새우리말 큰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축산업이란 가축을 기르고 가공하는 업으로 되어 있다.)

축산업의 정의를 올바르게 알아야

이제는 식량의 개념에서 식품의 (Food)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농산물은 1~2차 가공된 것을 먹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를 집에서 가공하던 것을 이제는 몇개 재벌에게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대기업이 식품산업에 참여하게 되어 이윤추구를 하다보니 원료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나친 서구화와 규모의 대형화로 파인 시설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고 독과점화되어 소비자가 피해

를 보게되며 대기업의 식품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외국농민만 살판나게 됩니다.

식품산업은 가내공업 또는 중소기업형으로

국민생존권이 걸려있는 식품산업을 몇개 재벌에 맡기는 것 같이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한 기업이 쓰러지면 국민모두 죽는 정책은 안 됩니다.

식품산업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지역 풍토에서 생산된 원료로 조상 대대로 먹어온 전통적인 식품을 근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며 선진국에 가보아도 가내 수공업적으로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의 가공분야 부가가치 생산자에 돌려주어야

독일에 가면 소세지를 가정이나 한동리에서 만들고 소위 끝(Finish)마무리 작업만 지역공장에서 하거든요.

이태리 불란서에도 농장마다 포

도주를 담그고 끝마무리 작업은 동리공장이나 지역공장에서 하지요. 영국의 스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 부녀자에 직장을 주는 결과가 되고 다품종 소량형의 높은 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게 되어 소위 수제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급식품을 생산하게 되고 농민에 가공 부가가치를 돌려주기 때문에 농촌은 풍요로워 집니다. 대형화하면 이런것이 안되지요.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니 국내 생산자와 단절되어 식품산업이 발전해도 생산자에게는 아무런 파급효과도 없으며 독과점화되어 원료값이 떨어져도 제품값은 그대로입니다.

식품산업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면 국민생존권 위협

국제 대두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식용유나 두부 콩나물 값은 그대로지요. 국내 콩재배 농가와 는 아무관계도 없고 오히려 싼값에 수입되니 농민만 죽을 지경입니다.

대량생산은 유해색소나 첨가물을 사용하게 되고 농가에서 구입하

는 원료도 규격품만 구입하므로 규격에 맞지않는 것은 농가에서 운임도 안되기 때문에 시장에 팔지도 못하고 농민은 생산품을 활용하지 못하여 버리게 됩니다.

식품행정 잘못하면 풍요속의 빈곤현상 나타나

한편, 도시 영세민은 비싼 규격품만 판매되고 값싼 것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농촌까지 소량구매를 위해 차비를 들여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비싼 규격품을 사야되고 값이 비싸니 돈이 없어 못사먹게 되어 산지에서는 버리고 도시 소비지에서는 못먹는 소위 풍요속의 기근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국민보건 발전에 장애가 되며 대기업의 횡포에는 마스크이 영합하게 되어 더욱 가속화됩니다.

농민 자가배합사료공장 금지하는 이유 납득안가

배합사료의 경우에도 특별한 것 전문성이 필요한 것만 농가에서 구입하여 농가에서 자가배합하여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야되는데 농민이 약 20%사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자가배합을 한다는데도 정부는 못하게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재벌이 축산업의 1차 소득분야(생산)까지 참여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풍년농사 정책은 가격폭락만 유도, 가공분야와 연계되어야

이러한 가공분야의 부가가치와 농민을 유리·격리시켜 놓고 복합영농 풍년농사 정책은 가격폭락을 유도하여 농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 온나라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농정을 1차원적 인간이 1차원적 사고방식으로 1차산업이란 개념하에 1차원적 방법으로 집행해 나간다면 농민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 집니다.

영국에서 배우자

영국이 산업혁명 성공후 과거 식민지가 많아 이들 식민지에서 농산물을 조달할 때 소위 비교우위를 주장하다가 2차대전후 식민지를 잃고 약소국으로 전락하게된 이 유가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이 없어 식량공급의 허약성 때문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도 영국은 이를 울바로 깨닫고 20년간 EC에도 가입하지 않고 농축산물 생산기반에 투자하여 이제는 EC제국과 동등하게 농산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출까

▼김성훈 교수



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생산기반 자재지원 가격유동정책에 얼마나 투자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농촌은 풍요로울 수도 빈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자: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박사: 첫째, 우리나라의 생산기반편을 보면 전국 농토의 관계 시설은 36%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논밭 합계). 축산의 경우에도 초지조성 축사시설 등이 어느 정도 인지는 축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둘째, 자재지원에서도 국제가격의 2배가 되는 비싼 비료와 비싼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중앙대학교의 백인기 교수는 배합사료 수급정책의 개선으로 30~40%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종자, 종묘, 종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자재 공급은 대부분 재벌들이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차액은 농민에게 생산기반 투자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농민소득 높여주는 정책되어야

배합사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바에야 생산자재의 수입도 개방해야 농민도 경쟁력이 생기지 농축산물은 수입하고 생산자재는 수입을 규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수입문제가 나왔으니 잡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수입정책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개방시대에 맞는 수출입정책 있어야

수입을 안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수입을 해야 한다면 적을 수록 좋다고 가정할 때 농축산품 수입개방에 앞서 수입해도 별볼일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수입을 개방해야 됩니다.

관세나 비관세장벽인 유통구조로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85~86년도 자료를 보면

미국 농민소득의 26%가 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렇게 생산기반에 투자를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수입개방을 해야지요.

수입자유화란 수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수입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입자유화란 수입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의 뜻이지 이번 알팔파의 경우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만톤을 수입하는 것 같이 수입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수입자유화 시대에 맞는 수출입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양담배의 경우처럼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국내 생산성을 높여 수입 축산물이 경쟁을 못하게 하고 축산물의 포장을 지역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본이 계란을 2개 3개 포장을 개발하여 12개 포장의 미국산 계란은 일본에 오려면 재포장해야 합니다.

자연의 오묘한 순리에 적응해야

홍보도 필요합니다.

토종꿀이나 국산 햇벌에 말린 고추가 좋다는 식의 홍보는 수입품이 못건디게 만드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식품이란 그 지역에서 철따라 생산되는 것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열대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수입해다 우리가 겨울철에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한의학을 전공하신분들의 의견을 들어 홍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따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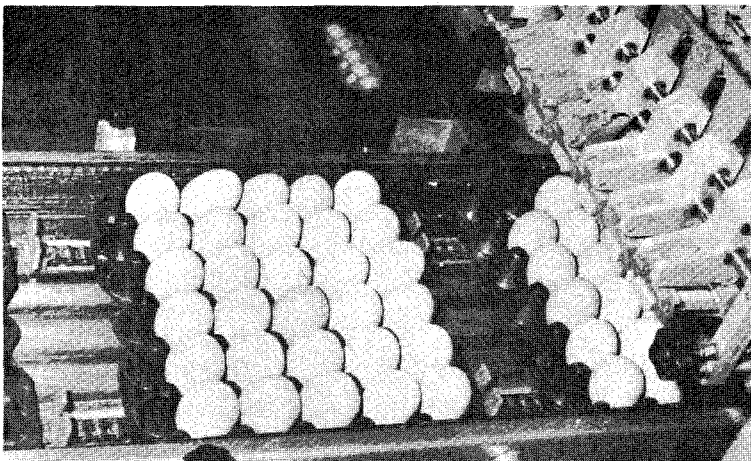
불가피하여 수입할 때는 판매 이익금이 국내 농업생산성 향상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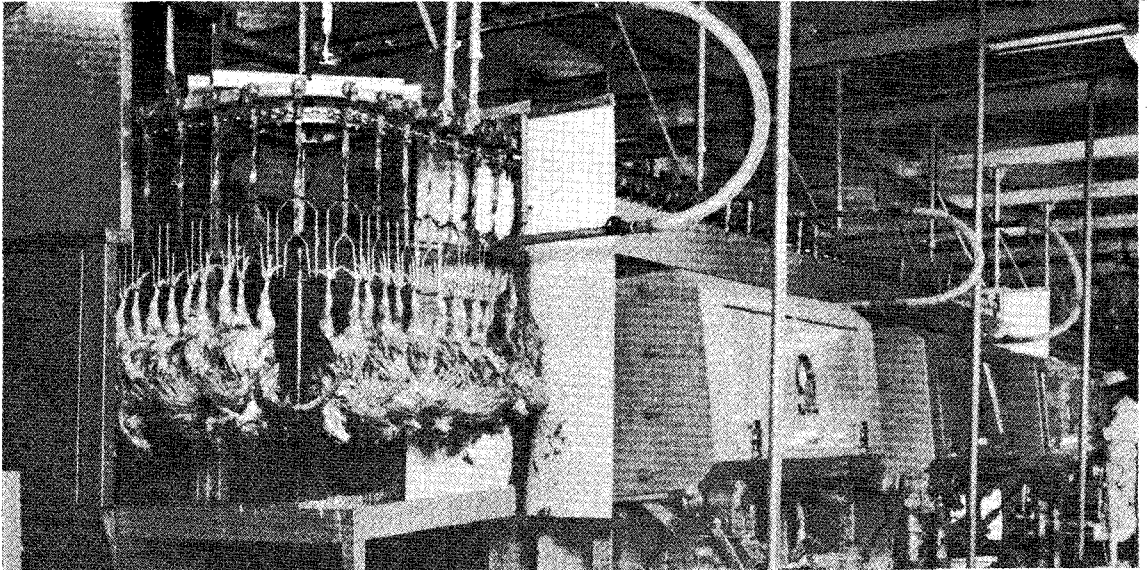
세제, 가공산업에 농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가공은 중소기업형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시상업자본의 참여를 막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합니다. 국산 원료 사용업체에 세금의 대폭감면 등 공산품처럼 특혜를 주고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돈을 더 많이 부담케하고 부락단위 지역중심의 가공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농축산물 793개 품목중 (SITC분류표 기준) 69.8%가 수입자유화 되었는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생산자재의 수입개방 길을 터야 합니다.

식품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번호만 보면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를 구분하고 원료는 무엇을 사





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산업은 생산에서 제품까지를 일괄 관리해야

외국에서는 햄·소세지 등 식품에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원료를 사용한 모사품에는 이미테이션(Imitation)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선으로 만들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잘 알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농민들도 유통 저장가공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농림수산부는 보사부에 넘어간 생산이후의 가공분야 업무를 되찾아와 농정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사부에 식품의 가공업무를 맡겨서는 식품산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현 보사부의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어떻게 생산과 가공을 분리해서 행정체계를 2원화 합니까? 이러한 비(非)상식적인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군 군납을 보세요. 농장에서부터 제품생산단계를 검토해서 군납을 받지 않습니까? 생산 원료단계부터 식품단계까지 농민소득차원에서 농림수산부가 품질관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감독해야지 원료따로 가공따로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결과는 가공산업이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밖에 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도 식품산업은 국민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지역·품토·전통의 차원에서 식품을 개발하여 근대화하되 중소기업형, 가내공업형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술도 국세청에서 몇개 재벌기업에 맡기지 말고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여 우리 기후

풍토 전통술을 가내 수공업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百足之虫 死而不倒

중국에 다리가 백개달린 벌레는 죽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百足之虫 死而不倒).

식품산업은 농민에 뿌리를 많이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농업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루빨리 농기업의 개념으로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를 농민 소득차원에서 중소기업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축산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농민이 아닌 우리 농민과 우리 소비자와 도시 영세민을 위한 식품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구의 도시집중, 고령자 세대의 감소와 20~30대층의 급증, 핵

가족세대 증가, 고학력화로 육구증
가 등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육
구관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의 농업은 1차산업이란 개념
으로 가공산업 업무를 보사부에 넘
겨주고 생산분야만을 다루는 어리
석음을 빨리 시정하고 축산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농축산 행정은 새로운 수

요창출로 국민보건과 농민
소득 차원에서 식품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김교수 : 미농무성 직원 14,000
명중 가공식품 행정담당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행정
은 생산장려가 아닌 식품서비스 행
정이라는 것을 알고 종합적인 식품
정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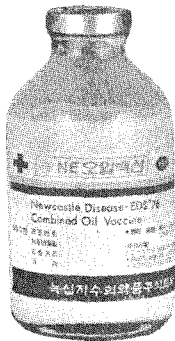
기자 : 벽에 부딪친 우리업계의
돌파구가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축
산업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식품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와 업계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도
분명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건강 계란으로 국민건강 닭고기로

ND · EDS
혼합오일백신

NE오일백신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NE 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 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 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자
매
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면구갈리227 ☎ 수원 ⑧ 3423/4